

## “자식 같은 ‘부코페’... 책임감으로 맡았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자속하는 동안 많은 생각과 반성  
웃음 아닌 씩씩함 드러 면목 없다  
성공적인 행사 위해 온힘 다할것”

‘내기 골프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맨 김준호(44)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3월 배우 차태현과 함께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휘말려 무대에서 내려왔던 그가 4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나서 고개를 숙였다.

김준호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부코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부코페 출범 때인 2013년부터 집행위원장을 맡아 축제를 이끌 어왔다. 다른 참석자들보다 앞서 무대에 오른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4개월 전 불미스러운 일로 자속 기간을 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준호는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5월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는 “자속하



3월 불거진 '내기 골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김준호가 8일 서울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

는 동안 반성도 많이 하고, 제 본업인 코미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개그맨으로서 웃음을 줘야 하는데 씩씩함을 드러 면목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 동료들이 조금 더 쉬어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했지만 부코페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껴 (참석을) 강행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기 골프 관련 혐의가 내사 종결된 후 언제쯤 복귀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다”며 “관련 사건 때문에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애매했는데 진

지하면서도 재미난 일을 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 일이 (복귀의 기회로) 가장 적절할 것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

김준호는 부코페가 “7살 난 내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며 진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는 “7년 전에는 그저 개그맨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파티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에서 기획했는데 7년 사이에 큰 행사로 성장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사건 후 정신을 더욱 똑바로 차리고 행사를 크게 키우는 것에 힘을 쏟자는 생각을 했다”며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김준호는 앞서 촬영을 마치고 이달 중 방영하는 케이블채널 tvN ‘서울메이트 3’을 시작으로 방송 활동에도 다시 나선다. 김준호는 “각종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당부했다. 부코페는 23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1일까지 11개국 40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유저계 기자 yjh0304@donga.com

## 투자자 성정대 혐의 양현석 이번엔 해외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

외국인 투자자 성 정대 혐의를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전 총괄프로듀서가 이번엔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근준 수사2계장은 8일 “양현석이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7일 오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양현석이 최근 해외를 오가며 13억여 원을 ‘환치기’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그의 해외 원정도박을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현석의 금융 관련 자료 등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7월17일 양현석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해외 재력가 등 투자자에게 유혹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그의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한일 관계 악화에도...일본인 가수 도전은 ‘~ing’

로켓펀치 유리·루안·유키카 등  
프듀48 출신들 잇따라 활동 나서  
대중들의 시선도 대체로 긍정적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본 출신 가수들이 잇따라 데뷔하며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걸그룹 러블리즈의 ‘동생그룹’으로 화제를 모은 로켓펀치가 7일 데뷔하면서 일본인 멤버 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유리는 지난해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 출연한 일본 걸그룹 AKB48의 멤버로, 올해 초 국내 유행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고 정식 데뷔했다. 그는 이날 데뷔 쇼케이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한국에 왔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루안, 유키카도 솔로가수로 첫발을 내딛었다.

루안은 지난달 31일 데뷔 싱글 ‘뽀뽀(BEEP BEEP)’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어와 일본어 버전을 각각 양국에서 발표했다. 한국 음악을 듣고 자라며 한국어를 독학했다. 그의 한국 매니지먼트사 스포트라이트의 김민석 대표는 “곡 작업을 전부 한국 스태프와 함께 했다. 이들 모두 루안의 노래를 들어보고 흔쾌히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싱글 ‘좋아하고 있어요’를 발표한 유키카는 2월 데뷔했다. 당시엔 이렇다할 시선을 끌지 못하다 최근 신곡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멤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 하니팝콘도 지난해 데뷔 무대를 치른 후 지난달 초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문화교류만은 멈출 수 없다는 현장과 대중의 시선이 맞물린 덕분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지만 “그릇된 시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각된 한일관계 속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종신은 3월 자신이 이끄는 미스틱스토리과 계약을 맺은 일본 가수 다케우치 미유가 참여한 음원을 발표하려다 연기했다. 그는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많은 고민 끝에 훗날을 기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유도 AKB48 출신으로, ‘프로듀스 48’에 출연해 가창력과 창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 냉각된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인 걸그룹 멤버의 활약이 눈길을 모은다. 신인 걸그룹 로켓펀치의 일본인 멤버 유리가 7일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데뷔 무대를 펼치는 모습. 뉴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9호(2018.06.12) (COM-2018-06-28146)

**암이 완치된 지금**

(최근 5년 이내 제외)

**질순이 넘은 지금**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사는 지금**

**암재발이 걱정되는 지금**

**혈압약 먹는 지금**

**암보험 하나 없는 지금**

**지금 이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때!** (간편심사 통과시)

**무매당 (갱신형) 꼭 필요한 암보험**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튼튼하게  
일시금  
장액지급

•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 최초 1회 보장(가입 2년 이내 50%)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혐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

